

거리엔 찬 바람 불고 갈곳 없는 노숙자들

교계 자활지원 '썰렁'

10월 23일 거리 노숙자 쉼터인 영등포 보현의 집에서 만난 정현득(49·가명)씨. 3개월간 영등포 등지를 떠돌며 노숙하다 쉼터에 입소한지 2주 됐다는 정 씨는 삶에 대한 애착도,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다. "사찰에서 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 씨는 "여기 있으면 밤 세끼 해결되는데, 낯선 곳에는 뭐하러 가느냐"며 거부감을 표시했다.

쉼터에 들어온 지 6개월 됐다는 이우중(53·가명)씨는 이제는 쉼터를 벗어나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한다. 앞서 정 씨에게 했던 질문을 이 씨에게도 던져봤다. 이 씨는 "정기적인 일거리만 있다면 당장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매일 밤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는 잠자리를 마련하려는 노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2004년 9월 현재 노숙자 수는 약 4,300명으로 추산됐으나 노숙자 시설 실무자들은 드러나지 않는 노숙자들이 많아 실제 수는 약 2만 여명 이상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거리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교계 노숙자 쉼터들의 수용인원도 평소 정정보다



시설 총 8곳 역부족... "자매결연·거리상담 등 필요"

늘어나고 있다. 현재 불교계의 노숙자 시설은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보현의 집' 4곳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이 중 여성 노숙자 전용 시설로는 본동 사회복지관과 '사우리는 선우'에서 운영하는 화엄동산이 있다. 불교계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포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타종교 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강요받았던 노숙자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요인이다. 그러나 불교계 시설은 자활 의지를 가진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수송 보현의 집 정영훈 사무장은 "여러 프로그램을 해 봤지만 노숙자들이 잘 들지도 않을 뿐더러 꾸준히 시행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며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 사무장은 가까운 조계사에서 불사를 하거나 행사 일손이 필요할 때 쉼터 노숙자들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일거리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한 톨이라도 아쉬운 쉼터 노숙자들에게는 한 번의

사찰 노역도 소중한 기회라 본다. 그런 점에서 부산 보현의 집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산 보현의 집은 '사찰 휴경기 경자 프로그램'을 마련해 쉼터 노숙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한다. 이런 활동은 스스로 피폐해졌던 마음에 자존감을 되찾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총무부장은 불교계 전반에 노숙자 자활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거리 노숙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자활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지킬만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계 노숙자 시설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자활 의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해 불교계 봉사단체들의 거리 상담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매일 밤 9시부터 '전국실직·노동자대책총교시민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최부식 신부)', '노숙자다시서기기지원센터(소장 황은성)' 등을 비롯한 노숙자 지원 단체들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를 돌며 실시하는 거리 상담은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 활동, 영화 관람 등을 장려하고, 사찰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영등포 보현의 집 오진환 부장은 "사찰 신도화와 노숙자들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자활 의지를 북돋아주면서 직업 훈련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주는 방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세계불교포럼'으로 교류 확대 한·중·일 교류 10년... 베이징서 뜻모아

한·중·일 불교교류를 확대하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 세계불교포럼이 창립된다. '평화·협력·발전'을 주제로 10월 22-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3국 불교는 세계불교포럼 창립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4면

포럼을 위해 중국 측은 △간행물 '황금유대(가칭)' 발간 △정례 학술대회 및 성지순례 △인재(유학승) 교류 강화 등의 사업들을 제안했으며, 세 나라는 포럼 운영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세 나라는 또 2005년 10월 서울에서 제8차 대회 개최, 한중·중일 선수행체합단 교류 확대, 테러와 전쟁 등 폭력에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합의서'를 채택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중일 불교교류 10주년을 맞아 3국 불교교류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베이징=조용수 기자

1993년 시작된 3국 불교교류는 그동안 자비와 평화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회 참가자들은 영광 사(주지 성취)에서 각국대표와 신도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통해 "불교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평등심을 바탕으로 한 평화와 공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비추지 않는 곳이 없도록 화합과 평화가 세상에 넘쳐나도록 응징정진 하자"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효암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과 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들과 참관인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태고종은 10월 28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수계산림을 열고 264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사진=이준엽 기자

"무상도 증득하리"

태고종 제28기 합동수계 수계산림에서 264명의 사미니(가)가 본격적인 출가 수행의 길로 나섰다. 태고종은 10월 27일 태고총림 선암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남행자 192명, 여행자 72명 등 총 264명이 28일간의 행자교육을 마치고 사미니(가)를 받았다. 이는 종단 최대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00여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수계법회에서 전제사 운산 스님(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출가 수행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여 무상도를 증득해야 한다"며 "일하는 승려, 일하는 사찰을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는 불교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예비승들은 수계산림 기간동안 경전강독, 강의, 율력 등의 교육을 받고 3번째 참회정진을 했다. 관련기사 6면 이준엽 기자

해인총림 발전 토론회 7일부터 4차례 열려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위원회(상임 공동위원장 원택)가 해인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해인총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해인총림과 교구발전 위한 토론회를 11월 7일과 28일, 12월 12일과 26일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해인사 종풍 진작과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참석자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11월 7일 열리는 1차 토론회는 '해인사에 바란다'를 주제로 일면·법등·종림 스님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한명우 기자

'합'

오름 나라가 어렵대
일본지진?
방글라데시 인도
나 얼굴고쳤다
매니큐어 바꿨다
그대 봤자 육신은 개강이야

정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그림·조태호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원형복원 준공대법회

■ 일 시 : 2004년 11월 5일(금요일) 10시 ■ 장 소 : 치악산구룡사

치악산 구룡사는 신라시대 문무왕 6년(AD 666)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호국명찰로써 도선국사, 무학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이 수행한 화엄심찰로서 전통사찰이며 호국안보, 조국통일, 국제민안을 발원하며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중창불사와 만일기도를 정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웅전 원형복원을 실측보고서에 의하여 준공하고 삼존불 불상(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점안 봉안과 평화(후불탱화, 신중탱화, 감로탱화) 점안 봉안 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무무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신라시대는 북원경으로 이조시대에는 강원감영으로 한반도 강원도의 호국 중심 도량인 치악산 구룡사 대웅전 원형복원 준공대법회에 동참하여 새천년의 역사를 기원하고 선근인연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기 2548년 10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치악산 구룡사 주지 (자광) 원 행 합장

■만들봉사
1인 1등: 일만원(영가 1위 추천원)
성 금: 십시 일반(일만원 이상)

■등참계좌
농 협 307011-51-036037
우 체 국 201327-01-001841
국민은행 303-01-0579-463

■문의
구룡사 중무소 TEL. 033)732-4800
FAX. 033)732-1211
(우)220-8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